

4·29재보선 결과에 담긴 민심의 현 주소

선거때만 거수기 요구... 실망 넘어 '분노'

“제1 야당 기득권 버리고 국민 편에서 행동하고 올려주는 정치를”

‘질 수 없는 선거’에서 4전 전패를 기록했다. 관악을과 성남 중원, 광주 서구를 등 민주화 이후 수 십년간 야당을 떠받쳐온 전통적 지지층이 전국적으로 우리 당을 외면한 선거였다. 그 것도 ‘뒷발 중의 뒷발’이자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도 탈당한 천정배 의원에게 맥없이 내 집 안 마당을 내주고 말았다.

이번 4·29 재·보선 선거결과는 이명박에 이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무능에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새정치연합이 희망과 대안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원인분석과 반성이 필요하다. 위기를 돌파할 특단의 조치와 비전제시도 요구된다. 광주와 전남지역 유권자들과 당 안팎의 인사들은 대표를 비롯한 당의 핵심 지도부가 여전히 ‘공천잘못’이나 ‘야권분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판박이 반성문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4·29 재·보선 결과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의 다양한 진단과 대책을 소개한다. 대다수 지역민들은 “신뢰의 위기, 즉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제1야당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한 오만한 자세”를 최대의 패착으로 지적했다.

광주 서구를 유권자 진재영씨(노무사)는 “실망을 넘어 분노했다. 세월호 참사로 애통해하는 국민들을 보듬어주며 함께 올려주는 의원, 국민의 편에서 행동하는 의원이 과연 누가 있었나?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무지 구분되지 않는 새정치연합이 시민들에게 선거철마다 거수기가 될 것을 강요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유권자 윤현진씨는 “호남이라고 무조건 새정치연합 편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주어진 특권을 내려놓는 바로 그분의 편”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윤모씨는 “야권분열 때문에 패배했다는 새정치연합과 일부 야당 성향 언론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시대 흐름이 무엇인지, 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 할 의지도 없이 제1야당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했던 것이 패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정권만이 유일한 야당이고 문재인만이 유일한 대선 후보라는 편견을 깨라. 새정권이 포괄하지 못하는 야권성향 유권자와 세력이 있으며, 그 것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는 현실을 인식하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2017년은 2012년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울의 권리당원 박명규씨(금호동·사업)는 “새정치연합에게 광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고 마이너스 통장 정도로 인식됐다. 지난 2008년 이후 여당 따라하기 전략으로 집토끼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새판짜기와 환골탈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황주홍 도당 위원장은 “당 안팎에서는 더 이상 깎아 내릴 때도 남지 않았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 편에서 함께 올려주고, 국민을 위해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을 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인
칼럼



황주홍

전남도당 위원장
(장흥·영암·강진)

자성과 쇄신만이 살 길이다

설마 이렇게까지 질 줄은 몰랐다. 아무렴 한 두 군데는 건질 수 있겠거니 했다. 4·29 재·보선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구 네 곳 모두 이렇게 큰 격차로 무너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민심이 무섭다. 언론에서 새누리당에 대해 ‘대형 약재(성완중 사건)’에도 불구하고 압승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니, 우리는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전패한 셈이 되었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공천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나쁜 방향으로 상호 상승작용을 해서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선거는 비교우위의 게임이다. 내가 아무리 잘 해도 상대가 더 잘 하면 지는거고, 내가 엉망이어도 상대가 더 엉망이면 이기는 것이 선거다. 절대 우위일 필요가 없는거고, 절대 우위자연(然)해서는 더욱 안된다. 새누리당과 무소속의 승자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데 대해 진솔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 자기 반성은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탓을 하는 것이다.

우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새누리당이 우리보다 더 잘했다는 것. 또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발휘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을 한다. 무엇보다 확실한 사실은 우리 당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에 임했던 것이 가장 큰 패인이었다.

민심은 왜 떠난 것일까? 그 근본원인은 편협과 오만이다. 상대에 대한 기형적 적대감에서 비롯된 우리 내부의 어떤 편협과 오만, 이것을 극복하고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희망을 갖기 어렵다. 국민들은 새정치연합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미덥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친 좌편향이나 투쟁 일변도의 정치가 통하던 시대는 지났다. 점잖고 의젓하며,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정치가 필요하다.

선거정국을 뒤흔든 성완중 사건은 누가 봐도 야당에게 대형 화재였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현 정권의 수뇌부가 망라돼 있는 성완중 뇌물리스크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분노를 자제하고 억제하고 그리고 뭔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또는 이 나라 경계를 위해서 야당 사람들이 정말 pingzhi 자중자에 하는구나, 이런 공감대 국민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국민여론이 100도로 필필 끓으면 우리는 99도 정도로만 갔으면 한다. 그런데 우리는 꼭 100도로 끓으면 거기다가 얹어서 계속 더 세계, 세계 가서 결국 정치적인 화재를 약재로 만들고, 그래서 선거 때마다 연패하고 그러면서 또 반성도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무슨 일만 터지면 모든 걸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장은 속 시원하고, 지지층에게도 카타르시스를 주고 만족감을 줄 지 모른다. 하지만 선거는 결국 다수 국민들을 얼마나 더 설득하고 지지를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다수 국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염증을 느끼고 있다. 국민 여론보다 우리가 더 강경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확실하게 달라진 우리 정치 문화라고 감히 진단한다.

우리는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거울삼아 당내 개혁과 쇄신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에 앞서 선거 결과의 책임을 외부 환경과 여러 가지 요인들에 돌리지 않고 우리 내부로 돌리는 그런 겸허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분열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례 없는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만이 살 길이다.



4·29 곡성군의원 재선거, 이재호 후보 승리

4·29 곡성군의원 재선거(가선거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재호 후보(52)가 5명의 무소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인터뷰 2면>

곡성 가선거구 선거인수는 1만3천310명으로 이 중 8천161명이 투표에 나서 61.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곡성읍에서 1천614표(38.3%)를 얻어 승기를 잡은 것에 힘입어 총 2천371표(29.3%)를 득표해

정원 7명의 곡성군의회 의원에 합류했다.

무소속 박철규 후보는 오곡면에서 634표(51.1%), 목사동면 324표(42%) 등 총 1천766표(21.8%)를 얻는데 그쳐 605표차로 2위를 기록했다. 손신환 후보는 1천312표(16.2%), 강덕구 후보 1천78표(13.3%), 최태호 후보 884표(10.9%)를 얻었고, 임원자 후보는 685표(8.5%)를 획득했다.

- 03 현안사업 점검 남해안철도
- 07 당원속으로 오디오장인 한상현씨
- 08 지역위탐방 여수갑
- 09 전남의야당사 동교동계의 고난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기
5월 영령들의 희생을 잊지않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새 원내대표에 4선 이종걸 의원 선출

“나눔·소통으로 난국 풀어나가는데 앞장”



새정치민주연합 신입 원내대표에 4선의 이종걸(58) 의원이 지난 7일 선출됐다.

이 의원은 전체 의원 130명 중 총 127명이 투표한 결과 66표를 얻어 3선의 최재성 의원(61표)을 5표차 이기고 우리 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됐다.

5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종걸 의원은 1~2차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였다.

당선 수락연설에서 이 원내대표는 “참담한 이 상황을 여유 있게, 힘 있게 풀어나가겠다”며 “선거에서 패배하고 무시당하고 소수당으로서 이 참담한 심정을 더 신중하게, 더 진중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문단을 운영해서 원내가 균형 있게 앞으로 나아가고, 서로 나누고 소통해서 어려운 난국을 꼭 풀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인터뷰 | 4·29 곡성군의원 이재호 당선인

“**군민의 뜻 충실히 대변, 경쟁력 있는 정책과 대안 제시**

지역 성장동력 높이기 최선 다할 터”



무소속 후보의 난립으로 끝까지 혼전양상이 펼쳐진 4.29 곡성군 가선거구(곡성, 오곡, 고달, 죽곡, 목사동) 군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한 새정치민주연합이재호 군의원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군의원이 되겠다”는 당선 포부를 전했다.

이어 “깨끗하고 투명한 새정치연합의 경선을 통과한 저력과 정당선거사무소 개설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전남도당의 지원을 바탕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희망을 주는 참된 정치 실현’을 내세운 그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보다 항상 다수 주민의 편에서 18년간의 공직생활에서 얻은 전문성을 발휘해

능력과 열정으로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노인 건강과 복지는 물론 장애인, 다문화 가정, 농민과 소상공인, 청장년 세대의 교육과 육아, 일자리 문제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각오다. 김 의원은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군민 여론을 철저히 대변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성장동력 제고 △군민통합 등 4가지 약속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곡성서초, 곡성중, 곡성종합고,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전남도 7급 행정직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구례군 지역경제팀장, 곡성읍 산업팀장과 총무팀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3년 명예퇴직했다.

도당, 4·29 곡성군의원 재선거 총력지원

정당선거사무소 개설, 도의원·당직자들 한마음으로 지원 활동



전남도의회 김연일 의원(대변인·영암2)을 비롯한 장흥·영암·강진 지역 도의원 6명이 이재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 유일의 4·29 재·보선 실시 지역인 곡성군 가선거구 군의원 재선거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이재호 후보의 선거지원을 위해 전남도당은 정당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도의원과 당직자 등을 파견해 선거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은 지난 4월 13일 4·29 곡성군 군의원 재선거 지원을 위한 정당사무소 개소식을 가진데 이어 28일 도의원 6명을 투입해 선거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근기 곡성군수와 고현석 전 군수,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상래 도의원과 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황주홍 도당 위원장은 개소식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반드시 승리해서 당원과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자”고 말했다.

도당은 김현호 수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도당 당직자 4명으로 지난 3일 4·29 재보선 실무지원단을 구성, 곡성군의원 재선거와 광주서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지원활동을 벌였다.

또 장흥의 이충식·김광준 도의원과 영암 우승희·김연일, 강진 광역체 윤도현 등 6명의 도의원들이 4·29 재·보선 D-1일인 지난 28일 곡성 현지에서 이재호 후보와 함께 상가방문 등 합동 선거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복당 신청자 69명, 신규 입당자 3천215명

도당 당원자격심사위 개최, 4월 17일 도당 회의실



전남도당은 지난달 17일 도당 회의실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허 석)를 열고 민복례씨(여) 등 복당 신청자 69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 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숙, 이순이, 김창남, 김숙희 위원과 김현호 도당 수석 사무처장과 이남규 조직국장 등이 참석했다.

도당 당자위는 이날 69명의 복당 신청자들에 대한 복당을 의결했으며,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신규 입당원서를 제출한 3천215명에 대한 입당 심사도 실시했다.

이 기간중 신규 입당자는 장흥·영암·강진 지역위원회가 1천7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주·화순 564명, 순천·곡성 365명, 목포 211명 등의 순이었다.

당보 제호 설문조사

질문 | 전남도당 당보 제호 공모 설문조사(전체 438표)

1. 전남도당 당보(현 사용)	<div style="width: 37.9%;"></div>	166표(37.9%)
2. 전남도당 당원의 소리	<div style="width: 30.6%;"></div>	134표(30.6%)
3. 전남도당 새소식	<div style="width: 22.4%;"></div>	98표(22.4%)
4. 전남도당 뉴스	<div style="width: 6.8%;"></div>	30표(6.8%)
5. 전남도당신문	<div style="width: 2.3%;"></div>	10표(2.3%)
6. 기타	<div style="width: 0.0%;"></div>	0표(0.0%)

전남도당 당보, 선호도 '1위'... 37.9%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당보 제호 설문 조사 결과 현 '전남도당 당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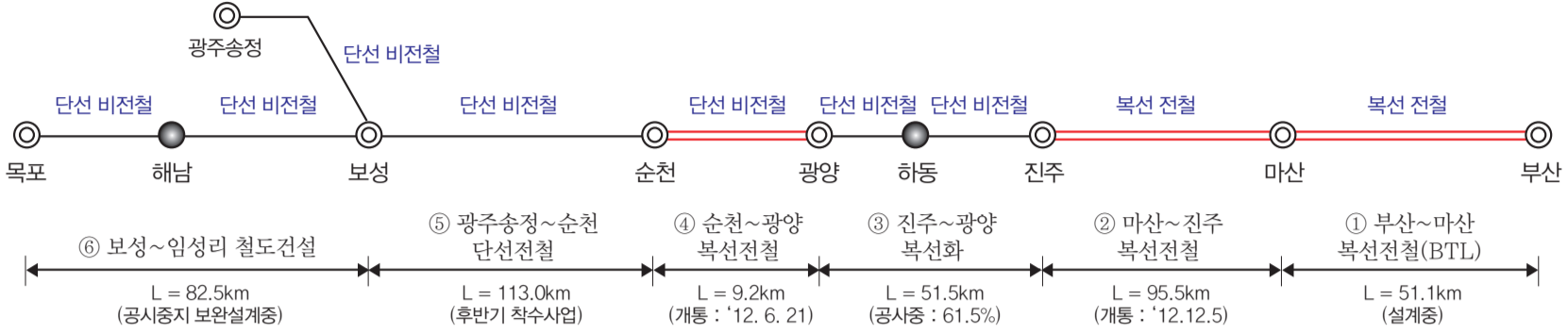
전남도당은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7일까지 28일간 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 및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당원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제호를 공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3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이 중 166명(37.9%)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당보'(현 사용)를 선택했다. 이어 △'전남도당 당원의 소리' 134명(30.6%) △'전남도당 새소식' 98명(22.4%) △'전남도당 뉴스' 30표(6.8%) 순으로 나타났다.

● 현안사업 긴급 점검 | 8년만에 재 착공된 남해안철도



남해안 철도망 현황



남해안철도 공사가 중단된 지 8년 만에 재개됐다. 남해안 철도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복선화 전철이다. 완공 시기는 2020년. 하지만 SOC 예산의 차별적 지원 때문에 예정된 기간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예정대로 공사가 완공된다면 5년 후면 한반도를 삼각 축으로 잇는 고속철도망이 완성된다. 남해안철도가 개통되면 전남과 부산-경남 등 남부권 통합 생활권 구축이 가능해진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서울 용산~광주 송정)이 4월 2일 개통되는데 이어 2단계 구간인 송정~목포와 남해안선까지 완공되면 남북 축에 이어 동서 축까지 그야말로 국토의 '반나절 생활권화'가 가능해진다. 재개된 남해안철도 공사 현장을 돌아보고 남해안철도 공사에 대한 현 정부의 차별적 예산지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해본다.



남부권 통합 생활권 구축 4개군 철도교통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생색내기 예산지원 2020년 완공 불투명... 추가 예산확보 절실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영산강 청호나루터 인근의 남해안철도 제7공구 청호터널 건설현장. 목포 임성역에서 전남도청을 거쳐 영산강 청호나루터 앞을 통과하는 청호터널은 오는 6월 터널 관통까지 불과 3m만을 남겨 놓고 마지막 굴착공사를 하느라 공사 차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다.

GS건설이 시공하는 청호터널은 총 1,204m로 675m의 영산강교 건설공사와 함께 7공구(7.5km)의 가장 난공사 구간이다. 영산강교의 경우 교량 하부를 지탱하는 우물통 기초 8기 공사가 현재 완료된 상태다.

7공구에 이어 오는 6월부터는 SK건설이 시공하는 장흥-장흥장동간 제2공구 사업도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GS건설 김장태 현장소장은 “올해 반영된 52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2월부터 공사를 8년만에 재착공할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를 삼각축으로 잇는 아름다운 남해안철도 건설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새정치연합과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무안 청호터널 오는 6월 관통, 마지막 굴착공사 중

2003년 착공한 남해안철도는 목포 임성에서 보성을 거쳐 순천, 광양, 진주, 부산까지 총연장 294.6km에 이르는 간선 철도망이다. KTX 속도에는 못미치지만 시속 200km로 운행이 가능한 고속화 철도망이다.

남해안선이 예정대로 완공되면 운행시간 단축 및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 영·호남간 SOC 분야 불균형 해소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시설공단 및 시공사 등에 따르면 남해안철도 목포 임성리-보성 구간(82.5km)은 2020년까지 완공 예정이지만 정부의 생색내기 지원으로 8년 동안 지난 2007년 4월 이후 8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남해안철도는 당초 전 구간을 복선 전철화 공사로 계획했으나 지난 2012년 경제성 등을 이유로 목포-보성 구간에 대해서만 갑자기 복선에서 단선으로 변경해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었다. 투자한 사업비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적 타당성이 비슷한 수준이었던 진주~광양, 포항~삼척 등의 영남 쪽 철도구간은 지난 8년간 꾸준히 예산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진주~삼랑진 구간은 공사가 완료됐고, 광양~진주 구간도 내년중 복선화 전철 개통을 앞두고 있다.

진주~광양 복선화사업은 기존의 노후화된 곡선이 많은 단선 철도노선(66.8km)을 복선으로 개량화(51.5km) 하는 사업이다. 또 부산~마산 구간은 2019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같은 노골적인 편중 예산지원으로 남해안철도는 차별과 소외의 상징이 된 호남선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라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외길, 단선이었던 호남선은 복선화 공사를 하는데만 무려 36년이 걸렸다. 경부선은 1936년 복선화 공사를 시작해 해방직전인 1944년에 끝났지만 호남선은 32년 후인 1968년 착공, 36년만인 지난 2003년에야 완공됐다.

예결위와 지역국회의원 강력한 요청, 52억 극적 반영

남해안철도 총사업비는 8조5천억원, 이 중 공사가 중단된 목포 임성-보성(82.5km, 총사업비 1조3천83억원) 구간의 재착공 예산이 반영됐다. 지난해 말 국회 예결위 황주홍 의원(장흥-영암-강진)과 우윤근 원내대표(광양-구례)의 강력한 요청으로 52억원이 극적으로 반영돼 일부공구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목포 임성-보성 구간의 7개 공구 중 공사가 중단된 곳은 장동-장흥(2공구) 8.1km와 영암-목포 임성(7공구) 9.5km 등 2곳(터키발주)이다. 2공구는 총사업비 1천251억원 중 259억원(20%)이 집행됐고, 7공구는 1천320억원 중 210억원(16%)이 투입됐다.

올해 52억원 예산 배정으로 국토부는 공사가 중단됐던 터키 발주 2개 공구의 공사를 재개했다. 반면, 2004년 설계를 끝낸 나머지 5개 일반 공구는 아직까지 발주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 미착공 5개 공구는 보성-장동(1공구) 11.9km, 장흥-강진(3공구) 13.9km, 강진-해남(4공구) 12.8km, 해남-영암 학산(5공구) 12.6km, 영암 학산-소호(6공구) 13.7km다.

GS건설 김장태 소장은 “목포-보성 구간의 정상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올해 약 4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며 “사업간 조정을 통해 미집행 철도예산의 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0년 완공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남해안철도 시대
무엇이 달라지나

목포-부산 2시간 30분,
광주-부산 1시간 50분만에 주파

호남과 영남 두 지역은 그동안 지역 갈등의 골 만 큼이나 마음의 거리도 멀었다. 교통편이 불편해 왕래가 덜 했기 때문이다.

목포 임성리에서 부산 부전역을 호남선과 경전선 철도를 이용해 무궁화호를 타고 갈 경우 무려 7시간55분이 소요된다. 단선인데다 직통 노선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2020년 남해안철도가 완성되면 2시간30분만에 목포에서 부산까지 철도편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남해안고속철도 순천~보성 구간은 기존 경전선 구간을 활용한다. 목포 임성리~보성 구간은 철도 노선 자체가 없었던 신설 구간이다. 따라서 이 구간에 철도 레일이 깔리면 4개 역이 새로 생긴다.

4개 신설 역사는 영암, 해남, 강진, 장흥에 들어선다. 전남 남해안권의 4개 지역에 철도교통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중인 순천~광주송정 사업이 추진될 경우 광주에서 부산까지 이동시간이 승용차(3시간20분) 대비 약 1시간30분 단축돼 1시간 5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철도시설공단관계자는 “완공되면 철도 이동 시간 단축으로 남해안권 통합생활권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영·호남 지역교류 및 지역균형발전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순서는 법정 선거구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박지원 의원, “호남고속철 비싼 요금 시정돼야”



박지원 의원(목포)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KTX 호남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됐지만 운행시간이 지켜지지 않은데다 요금도 비싸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 용산-광주송정 구간이 비슷한 길이의 서울-동대구보다 4300원이 비싸고, KTX 호남선은 목포까지 편도 요금이 특

실은 7만200원이나 돼 제주 항공편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백년대계는 물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의 조속한 노선 확정을 요구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해 “노선에 대한 시간대별 할인 혜택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평균 부담을 낮추도록 운임 체계를 맞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승용 의원,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유치



주승용 의원(최고위원·여수)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일환으로 2015년에 공모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사업에 여수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사업은 지난 2월 문광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2017년까지 올림픽 진남체육공원 내 연면적 3,500㎡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

이다.

국비 50억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장애인 체육시설과 샤워실, 휴게실, 교육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심리운동, 치료미술, 재활헬스 등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여수시 등록 장애인 수는 18,274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6.29%로 우리나라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인 5%를 크게 웃돌고 있다.

우윤근 의원,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유라시아 철도(SRX) 논의



우윤근 의원(원내대표, 광양·구례)은 4월 23일 알렉산드로 갈루시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막심 세레이킨 차관 등을 만나, 유라시아 철도(SRX)와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등 ‘한-북-러 3자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갈루시카 장관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나진-하산’ 간 철도(54km)를 통해 석탄 물량이 최초로 운송되는 등 ‘나진-하산 물류 프

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유라시아 철도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유라시아 철도를 완성하려면 우선 한반도 중단철도 연결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5·24조치’를 철저히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정상화하고, ‘북한 철도 현대화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촉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승남 의원, ‘미리 맛보는 보성 다향대축제’ 개최(국회)



김승남 의원(보성·고흥)은 천혜의 대자연, 녹차수도 보성에서 개최되는 제41회 보성다향대축제를 국회에서 미리 만나보는 행사를 지난달 30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다향축제 추진위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강창희 전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윤석 정성호 최재천 홍종학 윤명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미리 맛보는 국회 보성다향대축제’에는 녹차시음과 녹차음식 전시, 축제 사진전과 축제영상 상영, 보성소리 공연과 녹차퀴즈쇼 등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이벤트가 펼쳐졌다.

김 의원은 “22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다향대축제를 통해 커피문화로 인해 잃어버린 보성녹차의 명성을 되찾고, 다양한 녹차 상품을 통해 녹차의 대중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 저소득층 19만명 피부양가족공제 법안 발의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지난 1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을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기준 334만원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을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했다.

또 독립생계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

든 저소득층 부양가족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80%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조세 소위에서 개정안에 대해 법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양가족 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대상자는 약 19만명에 이르고 부양가족 감소로 정부가 더 걷은 세금은 137억원에 이른다.

김성곤 의원, 워싱턴DC와 LA서 동포간담회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김성곤 의원(여수갑)은 7일 LA한인타운의 ‘생명찬교회’에서 동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중앙일보가 주관하는 이날 포럼에서 김 의원은 재외동포 참정권, 이중국적, 2세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통일시대의 해외동포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워싱턴DC 한인연합회(회장 임소정)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미주 한인들의 고충을 듣고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연합회 임소정 회장과 이문형 이사장, 김태원 버지니아 한인회장, 린다 한 글로벌 한인연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미국 시민권자로 고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친형 로버트 김 사건이 직접적인 동기가 돼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신정훈 의원, 종자산업법 개정안 발의...육묘산업 육성·관리 근거 마련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양질의 규격 묘(苗)를 생산 및 유통하고 육묘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자와 묘를 종묘, 종자업과 육묘업을 종묘업으로 확대하고 ▲품질인증제 및 육묘업 등록제 도입 ▲육묘업체 생산 이력 기록·보관 ▲분쟁시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재 ▲정보보급중 생산대행 자격을 ‘농어업법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육묘시장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3년도 기준으로 2,420억 원 수준에 이른다. 육묘업체 수는 292개로 6배, 육묘장 면적은 195ha로 10배 가 증가하였다.

신 의원은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을 예방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종사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달 20일 △아동학대 행위자의 형량 강화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재개시 적합 여부 현장 확인 의무화 △종사자 교육 훈련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아동관련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 591건 중 56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 여성농어업인 권익향상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도당 위원장, 장흥·영암·강진)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처리를 강화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발의에는 김성곤·김광진·김춘진·박민수·도종환·강창일·조정식·유성엽·김영록·이찬열 의원 등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황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은 도시 거주 여성에 비해 여가시설이나 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전문가 상담 등의 고충상담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시행 과정에서 여성농어업인과 가족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했고,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의 여가활동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윤석 의원,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회장 취임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은 지난달 16일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사)국회입법정책연구회의 제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국회입법정책연구회는 국회 등록 사단법인으로 정파 구분 없이 여야 전·현직 보좌관 2천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연구회는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과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

출하는데 기여하고,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윤석 회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연구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활발한 정책연구와 토론을 통해 연구회의 입법보좌기능을 강화하고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도의회 294회 임시회 도정 질문·답변



김연일 의원, “대불산단 배수펌프장 인근 제방 붕괴위험”

목포 내항 해수면 30년간 무려 40cm 상승… 제방 곳곳 파이고 파손

김옥기 의원,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 지연 대책 추궁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2일과 23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벌였다.

도의회는 이틀간 이낙연 도지사와 장만채 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옥기(나주), 김탁(목포), 김연일 의원 등 16명이 나서 대불산단 방조제 부실관리 등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김연일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틀째 도정 질문에서 “대불산단 인근 목포 내항의 해수면 높이가 지난 30년간 무려 40cm가 상승한데다 콘크리트 제방 상·하단부 곳곳이 노후화로 파손돼 제방 붕괴 위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수산부와 토지개발공사가 방조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며 전남도에 산단 배수펌프장 주변 제방 안전관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지사는 5일 오전 영암 삼호읍 대불산

단 내 노후시설인 제방, 배수펌프장 등을 방문해 안전상황을 확인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연일 도의원과 도 및 영암군 관계자 20여명이 함께 했다.

앞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옥기 의원은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의견 차이로 노선결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이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1단계 노선 개통식에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의 여건과 승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곧 결정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주문했다”며 “조만간 노선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탁 의원은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대해 이 지사는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발의

김효남 농수산위원장 대표발의 결의안 채택



김효남
농수산위원장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위원회 김효남 위원장(해남2)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가격안정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에서 2015년도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품목별 주산지 중심 공동경영체 육성, 안정적인 소비확대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이 경기침체 등으로 제

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전국 20%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남 농업인들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어 농업인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전남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급물살… 오는 7월 출범

조례안 시·도의회 본회의 통과, 18개 시·도 상생과제 첫 결실

전남도와 광주시의 상생 발전 의제 중 첫 번째로 추진한 시도발전연구원 통합과 관련해 그동안 보류됐던 통합조례안이 도의회와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입지 논란으로 4개월여 보류했던 시·도 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3개월 동안 숨 가쁘게 진행된 연구원 통합 운영이 실현돼 나머지 18개 광주·전남 상생과제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새 조례안의 명칭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로 ‘발전’ 명칭을 없앴다. 연구원의 자율·독립성을 위해 당연직 이사장이었던 시도지사가 이사에서 배제됐다. 연구원은 3년마다 발전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 운영비 등은 시도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시도의회는 매년 공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연구과제와 운영 협의 등을 위한 공동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연구원 소재지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정하고 정관에 넣기로 했다.

시도는 통합준비실무회의를 구성한 뒤 법인 해산과 새로운 정관 작성 등을 거쳐 창립총회와 원장공모 등을 마치고 7월 중 출범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문을 열었고, 1995년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운영됐다.

이어 지난 2007년 분리된 뒤 지난해 7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양 시도 상생발전의 제1호 의제로 통합이 추진됐다.

도의회 강성희 기획사회위원장은 “기금 불균형 문제와 소재지 문제, 시·군 의견수렴 등으로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소재지 문제를 도지사와 시장이 전향적으로 결단을 내려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수부, 세월호 선체 사후활용 방안 찾는다

황주홍 의원, ‘인양 전시’에 대한 정부 입장 확인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용역을 실시해 선체 인양 전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도당 위원장, 장흥·영암·강진)에게 제출한 ‘세월호 선체전시’에 대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선체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용역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사후 활용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선체 전시’ 제안은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달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이 지사는 해양구조 훈련센터, 안전 체험시설 건립도 건의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달 24일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유기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해수부는 해양구조훈련센터에 대해서는 “해양안전 훈련·체험시설 설치 의견에는 공감하나 이를 시·군마다 설치하는 것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추모사업과 연계해 동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아픔의 역사를 가까이 두고 되새겨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인양과 추모관 조성을 서두르되 지역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진도 임희면에 ‘세월호 기억의 숲’ 조성

전남도, 오드리 헵번 어린이재단과 공동 추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세월호 기억의 숲’이 조성된다.

전남도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달 4월 10일 진도군 임희면 백동 무궁화동산에서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 어린이재단과 함께 진도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세월호 기억의 숲’ 조성 행사를 가졌다.

팽목항에서 4km 떨어진 ‘기억의 숲’은 어린이 구호활동에 앞장서온 고(故) 오드리 헵번의 아들 션 헵번 페리 이사장이 지난해 5월 (주)트리플레닛을 통해 도에 제안해오에 따라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의미에서 노란색의 단풍이 드는 은행나무 30그루를 심었다. 숲 조성 재원은 어린이 재단 후원금 1천만원과 5월말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오드리 헵번 재단은 어린이 구호활동에 헌신해 온 오드리 헵번의 뜻을 기리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1994년 설립됐다.

당원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패배했나?



서재완
진도지역위원회 정책실장

1997년 11월21일, 당시 임창렬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에게 IMF 구제금융 요청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IMF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은 “나라 곳간이 거덜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듣고 “나라가 망한거나 다름 없다. 경제 식민지가 됐다”는 등의 불안에 떨었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는 불과 1~2주 전까지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큰소리치고 있었다.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였다.

몹시 화가 난 국민들은 정부를 바꾸었고, 마침내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새 정부는 5년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빌렸던 돈을 모두 갚았고 비워진 곳간까지 빼곡히 채워 놓았다. 그때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

1997년 대선에서는 IMF 책임론이 대두됐지만 화살은 엉뚱하게도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에 향하고 있었다. 금융개혁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버스가 절벽으로 향하고 있는 순간에도 차장 탓만 하며 핸들을 바꾸지 않는 운전 기사에게 승객들의 안전은 염두에 없었다. 이 사실을 안 국민들은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결과는 40.3% 대 38.7%의 신승(辛勝)이었다. 39만 557표 차이였다.

현 집권세력인 새누리당의 줄기를 찾아가보자. 새누리당의 모태인 군사독재 정권의 공화당과 민

정당, 3당 야합으로 탄생한 김영삼 정부의 민자당은 선거만큼은 늘 우등생이었다. 그들은 책임 선거에서도 1등이었다. 차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1년 전 세월호 사고에서 박근혜 정부의 누가 책임졌는가? 말단 현장 책임자인 해경 경위 한사람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늙은 선장에게는 사형이 선고됐다. 교통사고일 뿐이라는 인식이다. 말도 안되는 결과를 내 놓고도 너무 당당해서 정말 그런 줄 아는 국민들이 뜻밖에 많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

최근 현 정부의 수뇌부 8명이 성완중 뇌물 리스트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도 박 대통령은 재보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과거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노무현 정부가 성완중을 사면했던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도, 예의도 없는 아무런 영혼도 느낄 수 없는 모습이었으나 4.29 재보선은 선거는 여당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야당은 늘 보선에서 패배한 전철을 또 되풀이했다. 선거 후 패인을 곰곰이 되씹어 보았다.

새정치연합은 ‘지역주의’에 민감하다. 저들이 책임선거에 ‘프로급’이라면 우리는 선거의 패배를 ‘지역주의’ 탓으로 돌리는데 역시 ‘프로급’이다. 잘 되면 내 탓, 못되면 ‘지역 탓’으로 치부해왔다. 선거에서 매번 지는 가장 큰 이유다. 개표 뒤 가장 많은 들은 이야기가 “어떻게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는가”였다. 그리고 체념한다.

냉철하게 들여다보자. 현 정부의 실정에 국민들은 지쳐 있고, 네 곳 가운데 세 곳은 야권 강세 지역이었다. 그랬는데도 완패했다. 여야의 지지층, 그리고 관망세력은 전통적으로 30%, 30%, 40%로 나뉜다. 양쪽의 30%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대립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객관적 입장에서 투표하려 애쓰는 40%의 마음을 이끄는 쪽이 선거에서 승리한다. 새누리당은 그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연한 사실을 언제나 간과한다.

고정 지지층은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중도의 40%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우리는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우리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무능정부는 혼자 태어나지 않는다. 정부가 무능한 것은 정치가 무능한 것이고 정치는 여와 야가 함께 하는 것이다.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저들만 못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에 40%의 유권자는 공감하지 않았다. 차라리 “우리는 이것밖에 못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힘이 부족했다. 그 힘을 채워주셔야 우리가 마저 하겠다”고 설득했어야 했다. 무능한 정부를 만든 것에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유권자와 같은 마음이 될 것이다.

멀리 날아갈 새는

● 남약시론



이성오
광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장자’의 소요유편 첫 구절에는 봉(鵬)이라는 새가 나온다. “봉은 등이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한 번 펼쳐 날면 그 날개가 하늘 가득 덮은 구름과 같다. 이 새는 큰 바람이 일게 되면 그 큰 바람을 타고 남쪽 바다로 옮겨간다. 그 곳이 천지(天池)다.”

황당하지 그지 없다. 하지만 장자를 읽고 또 읽으면 뭔가 후련한 느낌을 얻게 된다. 각박한 현실을 잠시 뒤돌아보고, 작은 것에 집착해온 웅졸함을 깨닫게 된다.

4.29 재·보선 패배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 책임론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4.29 재·보선 결과 평가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60.9%가 ‘새정치연합이 못한 결과’라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이 잘해서 얻은 결과’라는 응답자는 22.7%에 그쳤다.

겨우 4석에 불과한 이번 재보선이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야권의 심장인 광주와 수도권 지역의 텃밭인 관악에서의 패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더구나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제1야당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2014 지방선거, 지난해 7·30재보선에 이번 선거까지 연전연패를 당했다. 모두 ‘절대 질 수 없는 선거’

라고 했다.

과연 대망의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이길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가망이 없어 보인다. 호남민들의 여망인 정권교체는 멀게만 느껴진다.

표밭은 변했다. 야권은 분열을 거듭하는 반면, 집권여당의 편인 보수층은 결집하고 있다.

특히나 수도권에서 만나는 호남출신 선후배들이나 친지들은 과거처럼 결코 제1야당을 고집하지 않는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이어 정권을 창출한 이후부터 수도권 호남민들과 그 2세들의 표는 뚜렷이 분화되는 추세다. 지금의 새정치연합, 구 민주당에게 맹목적으로 투표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수도권에 안착하면서 상당수가 보수화됐다고도 평가한다. 기존에 야당에게 우호적이었던 20~30대 젊은 유권자들도 이제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늘었다.

신인들의 진입은 더 어려워졌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면 단번에 선출직이 되기는 갈수록 쉽지 않게 됐다. 제1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노 세력은 10년 전 참여정부 시절 17대 총선에서 처음 등장한 정치인들이다.

광주 서구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된 것은 호남민들의 친노에 대한 누적된 피로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부 호남 정치인들은 “이번 선거는 더 이상 친노와 함께 갈 수 없

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결국 분당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호남을 위한 정치세력을 키워야 한다며 다당제를 얘기하고, 집권을 위해 야권이 연대해 연합정권을 세우면 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하지만 과연 그 길밖에는 없는가. 현행 선거제도와 권력지형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얘기다. 호남 출신이, 또는 호남을 위한 정치세력이 집권하는 길은 너무 멀고, 조기에 실현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냉정함을 되찾아야 한다. 호남은 인구에서든, 경제력에서든, 정치력에서든 마이너리티(minority)다. 소수자집단이 정권을 쥐려면 특단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쫓는 실용주의로 전환이 절실하다. 기존의 정치권력과 타협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전술적으로는 호남에서 여당 정치인을 뽑아 경쟁구도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아마도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한다. 명분이나 감상에 치우치면 결코 대의를 이룰 수 없다.

남도 시인 허형만은 ‘멀리 날아갈 새’에서 이렇게 말한다. ‘멀리 날아갈 새는/ 종종대지 않는다...(중략)...오직 날아갈 꿈 하나/ 폐혈관에 가득 채울 때까지/ 출렁대지 않는다’.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오디오로 '각광' 오디오 매니아들, 전국에서 청음 발길

'당원 속으로' 섹션 '클로즈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과 도당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권리당원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난입니다. 이번 호는 진공관 앰프와 스피커를 직접 제작하는 오디오공방 '어쿠스틱'을 운영하는 한상현씨를 만나 빈티지(Vintag) 오디오의 세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오디오와 음악감상에 빠져 진공관 앰프와 스피커를 직접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오디오 장인 한상현씨(53·사진). 최근 신규 권리당원으로 입당한 한씨는 그런 면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빈티지 오디오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고수인 그는 지난해 광주 북구 일곡동에 아예 공방을 차리고 빈티지 오디오를 직접 제작하고 보급하는 일에 나섰다. 홀로 계시는 노모를 보살피기 위해 수시로 고향인 장흥과 광주를 오가며 스피커와 진공관 앰프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가 빈티지 오디오의 세계에 입문한 시기는 20년 전인 지난 1995년 무렵이었다. 당시 우연히 청음하게 된 50년대의 미국산 알텍 스피커와 진공관 앰프가 어우러져 내는 환상적인 소리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선천적으로 손 재주가 많았던 그는 같은 종류의 오디오 구입을 원했지만 엄청난 가격에 놀라 직접 제작하고자 맡겠다는 욕심을 갖게 됐



그가 주력하는 오디오 기기는 빈티지 스피커들이다. 현대의 하이-엔드급 스피커들은 소재와 디자인 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했지만 음질은 결코 과거의 빈티지 스피커들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



다. 이 때부터 일본 원서를 구입해 각종 회로도와 오디오 서적들을 독파한 그는 인터넷 동호회 등에서 해박한 이론과 탁월한 손재주로 이름을 알리어나갔다. 처음엔 회원들의 빈티지 오디오에 대해 조언하는 수준에서 고장을 수리해주고 직접 앰프와 스피커를 제작해 매칭해주는 장인의 경지까지 도달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공방에는 전국에서 빈티지 오디오 매니아들이 그가 만든 오디오 기기들을 청음하거나 기기의 매칭에 대해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그의 창작품들은 앰프와 스피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손재주가 좋은 그는 목공에도 조예가 깊어 러시아산 자작나무를 수입해 트위터를 만들고, 검은 외관이 돋보이는 맥감나무로는 턴테이블 받침대를 제작하기도 한다.

그가 주력하는 오디오 기기는 빈티지 스피커들이다. 현대의 하이-엔드급 스피커들은 소재와 디자인 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했지만 음질은 결코 과거의 빈티지 스피커들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

"현대 스피커는 지독히도 비효율적이어서 사운드와 오디오의 세계를 알게 되면 심중팔구는 결국 빈티지 오디오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 한씨의 설명이다. 예컨대 앰프를 통해 100w의 소리 에너지를 전달하면 85%는 열로 손실되고 불과 15% 정도만 운동 에너지로 변환돼 진공관을 때려서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하이-엔드(high-end)급 오디오 스피커들은 필연적으로 큰 출력의 앰프를 필요로 하게 된다.

과거 1w로 신호로 재생할 수 있었던 사운드를 현대 스피커들은 100w 정도로 보내야 동일한 음량으로 재생할 수 있다. 결국 현대 스피커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음의 왜곡 등 여러 가지 조건에서 비효

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1w의 신호로는 꼼짝하지 않기 때문에 굵은 전기신호를 흘려줘야 하고, 더 작은 신호들은 까먹기 쉽상이다. 디테일한 사운드의 재생은 결국 큰 출력의 앰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올드 스피커들이 더 낫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씨는 "빈티지와 현대 스피커들을 구분짓는 결정적 요소는 출력이 아닌 내입력(파워 핸들링)과 능률의 차이"라고 말했다. 스피커 스펙의 내입력, 또는 파워핸들링은 스피커의 손상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앰프로부터의 입력의 한계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스피커가 손상없이 낼 수 있는 소리 크기와도 관련이 있다. 현대 스피커는 내입력이 훨씬 높아서 1kw의 전기신호에도 버틸 수 있는 반면 출력은 정반대로 더 낮다.

출력과 능률의 경우 올드 스피커들이 훨씬 높다. 오래된 빈티지 스피커들은 능률이 훨씬 높아서 작은 출력의 앰프로도 엄청난 굉음을 토해낼 수 있다. 그는 "이 곳에 있는 이 스피커(젠센 트리플렉스)의 사촌격인 비슷한 크기의 동일 메이커 스피커들이 과거 광주시내에서 극장 용으로 사용되면서 수 백평 크기의 극장을 광광 울려댔다"고 설명했다.

결국 오디오의 기술력은 1950년대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씨는 "50년대의 진공관 오디오와 스피커들의 기술 수준이 정점이었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쇠퇴했다"고 주장한다.

"오디오에 탐닉하면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씨는 앞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빈티지 스피커의 해상도와 출력, 능률을 그대로 간직한 북셀프형 수제 스피커를 제작해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자 하는 포부를 갖고 있다.



엑스포 개최로 구도심권 비약적 발전, 도시 면모 일신

“

11개 상설위원회 발족... ‘희망밥차’ 무료급식 등 봉사활동 펼쳐
진보·보수, 남북·동서간 상생과 화합, 동북아 평화 정착에 역점

”

여수(麗水)는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바다에 둘러싸인 항구도시이자 공업도시이다. 손꼽히는 미항이자 휴양지로 유명한 여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점점이 수놓은 365개의 보석처럼 아름다운 섬들과 밤 바다의 야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같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2012여수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여수는 세계 4대 미항의 비전을 선포하고 해양관광도시로 그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다.

해양엑스포의 도시, 여수에서 4선을 하며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김성곤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의 지역구인 여수갑은 1읍, 2면, 11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구도심권이 대부분인 여수갑은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 본영이 있는 진남관을 비롯, 이순신광장과 이순신대교 등이 충무공의 얼이 살아 숨쉬는 유적지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자산공원과 돌산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와 여객선터미널, 여수국제박람회장이 있는 엑스포해양공원, 오동도와 거문도, 백도, 금오도 등 많은 관광자원들도 대부분 여수 갑 선거구 내에 위치해 있다.

인구 30만명이 채 되지 않는 여수는 국제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특히 도로와 철도, 항만 시설 등 SOC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져 여수는 박람회 개최 전과 후가 크게 대비되는 비약적 발전을 이뤄 도시의 면모를 일신했다. 여수발전의 원동력이 된 박람회 유치에서부터 성공적인 개최까지는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국회 세계박람회지원특위 간사와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성곤 의원(여수갑)의 다방면에 걸친 활약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그는 △‘남해안시대를 위한 의원연구모임’을 만들어 ‘여수세계박람회와 남해안 시대’(2010.7) 정책토론회 △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10.3) △해양마리나 산업 진흥과 남해안 선벨트 정책의 연계방안 세미나(2009.9) △여수박람회와 기후변화 대응전략 세미나 △엑스포 시민참여 방안 모색 한국 NGO학회 포럼(2009.9) △세계박람회 성공기원 4대중단 연합음악회와 시민결의대회 등 많은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측면지원 했다.

김 의원은 온건중도를 표방하는 정치인이다. 대학시절 긴급조치 7호 위반으로 제적된 아픔을 겪은 김 의원은 우리 정치를 갈등구조로 만드는 요인으로 진영논리와 계파주의를 꼽는다. “여야의 진영주의를 벗어나 성숙한 ‘중도’를 뜻하는 ‘중정(中正)’의 정치를 펴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난 2월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을 수상한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평소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선량(選良)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때 홀로 몸으로 실천하며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다. 지난 2010년 12월 폭력으로 얼룩졌던 4대강 예산 처리 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3천배를 울리며 날치기와 폭력주의 청산을 온 몸으로 외친 일화는 평화주의자이자 의회주의자인 그의 면모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평소 남북과 동서지역간 상생과 화합, 동북아평화에 헌신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진 김 의원은 △진보와 보수의 통합 △남북간 화해와 교류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 등의 3가지를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다.

또 의회주의자답게 지역위원회의 모든 현안들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사당화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의 민주적 리더십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 활동을 보좌하고 있



지역 특화사업으로 ‘희망밥차’ 봉사활동을 매주 펼치고 있다. ‘희망밥차’는 각 상설위원회 분과장 책임 아래 노인들이 자주 찾는 여수해양공원 등지에서 당원들이 실시하는 무료 급식 봉사활동으로 노인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는 당직자들은 조홍호 사무국장과 심보민 사무차장, 그리고 윤혜련 간사 겸 총무부장 등 3명이다. 조 사무국장은 금융인 출신으로 시체육회 부회장과 라이온스 전남동부지구 부총재와 감사를 지냈다. 심 차장은 지역위 청년위원장을 역임 후 지난 3월부터 사무차장에 임명됐다. 윤 부장은 12년째 지역위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베테랑이다.

조 사무국장은 “지역위원회의 모든 안건은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나아가 현안 및 중요한 안건들은 기초·광역의원들이 참여하는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위원회와 여수시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정기적으로 당정협의 회를 개최해 지역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수갑 지역위는 11개 상설위원회를 구성,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당면 과제와 문제점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는 ‘희망밥차’ 봉사활동을 매주 펼치고 있다. ‘희망밥차’는 각 상설위원회 분과장 책임 아래 노인들이 자주 찾는 여수해양공원 등지에서 당원들이 실시하는 무료 급식 봉사활동으로 노인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성곤, 누구인가

김 의원은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사학을 전공했다. 미 템플대에서 종교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원광대와 이화여대 교수,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사무총장 등으로 일하다 96년 15대 총선에서 국민의회의 공천으로 첫 출마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16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으로 지역구 의석이 줄자 김충조 전 의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불출마했다. 2002년 17대 국회에 재입성한 뒤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18, 19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돼 4선 고지에 올랐다. 현재 중앙당 통일위원장·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3선개헌과 40대 대통령 후보 김대중 탄생

1970년 신민당 전당대회, 이철승과 손잡고 김영삼에 대역전극

유신쿠데타로 DJ 해외 망명투쟁... 김옥두·조길환 중정 끌려가

권노갑은 목포상고 후배로서 고교 시절 선배 김대중의 측석 웅변에 감동해 운명적인 끈을 맺게 된다. 동국대를 나와 영어교사를 하다가 인제 선거 때 동지로 합류한다. “내 묘비에 ‘김대중 비서실장’만 적어주면 아무 여한이 없겠다(권노갑의 발언)”고 하는 평생 인연의 시작이다.

엄창록(1988년 사망)은 함북 주을 출신. 선거판의 귀재로 불리는 재주꾼이다. 원산사범학교를 중퇴하고 인제에서 신 사장이라는 사업가를 도우며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신 사장이 김대중을 도왔기 때문에 그도 선거참모가 됐다. 상대(여당) 후보의 조직과 자금을 이기기 위해 의표(意表)를 찌르는 전략에 뛰어났다. 한마디로 기발했다. 야당 운동원이 양담배를 꼬나물고 다니며 여당 후보를 찍으라고 권유한다든지, 야당 운동원이 봉투에 담기에는 치사한 액수를 담아 여당에서 돌리는 돈이라고 뿌린 다든지, 여당 후보 이름으로 고무신을 돌린 뒤 “번지수가 잘못돼 다른 집에 보내야 한다”며 되찾아 간다든지 하는 수법으로 여당을 교란하는 전술은 모두 엄창록의 창안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엄창록은 김대중의 마지막 국회의원 출마가 되는 1967년 총선에서 그 출중한 아이디어를 심분 발휘한다. 박정희는 그해 총선에서 목포를 ‘정책지구’라 해 김대중을 의도적으로 낙선시키려 했다. 그 지독한 십자포화에서 김대중을 기사회생케 한 것은 바로 엄창록이었다. 체신부장관을 지낸 군 출신 김병삼의 자금력과 조직에 맞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김대중 특유의 선전선동과 조직 분야에서 엄창록의 게릴라전(카운터펀치)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김옥두 이수동 한화갑의 가세

그 선거에 이김으로써 김대중 자신을 포함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4년 후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박정희와 겨루어 540만표(100만표 차로 낙선)를 거두는 놀라운 성취로 내달리는 것이다.

김대중이 1963년 목포 선거에서 당선, 재선(사실상 초선)으로 등원하면서 참모 비서 등 식구도 늘어나게 된다. 1963년 민주당 선전부장으로 있을 때 선전부 차장이 김상현이었다. 그는 김대중이 인제 낙선을 전후해 소공동에서 웅변학원을 경영할 때 강사로 있었기 때문에 한술밥 인연이 오래 됐다. 그리고 1964년 서울 서대문 보선에서 김상현이 임흥순(2·3대 의원)과 싸울 때 엄창록을 참모장으로 ‘임대’해 줄 정도로 형제가 됐다.

1965년에는 김옥두가 가세한다. 한양대 공대를 졸업하고 병역을 마친 뒤 형 김원식(역시 동교동 초창기의 일원이다)의 소개로 입문한 것. 장흥 출신 김원식은 동향의 박석교라는 정치인을 도와 선거를 치르다 박석교와 같은 민주당 소속의 김대중을 알게 되고 동생 김옥두까지 데리고 동교동 식구가 된 것이다. 김옥두는 처음 광화문에 있는 DJ의 내외문제연구회 사무실에 1년 가까이 나가다 신임을 얻어 동교동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때쯤 먼 훗날 경기도 성남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윤수도 동교동에 발을 들여놓는다. 그 무렵 하의도 이웃마을의 이수동(나중에 아태평화재단 이사) 같은 동향 출신만이 주변에 모여든 것은 아니었다. 국회의원 김대중은 벌써 전국적인 지명도를 쌓고 있었다. 1964년 4월 21일 김준연 의원 구속을 막기 위해 의사진행 발언을 무려 5시간 19분이나 하는 기록을 세움으로써 유명해진 김대중은 민주당 선전부장, 대변인 등으로 지명도를 더욱 높였다.

1967년 총선에 즈음해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직장에



1973년 8월 13일 밤 납치됐다 극적으로 풀려나 돌아온 DJ가 동교동 자택에서 전화를 받고 있다(위 사진). 긴급조치 해제, DJ와 김지하 시인, 그리고 구속학생 석방을 촉구하는 연좌시위(아래사진). <고려대 현대정치연구회 제공>

나가던 한화갑이 합류한다. 하의도와 인접한 섬 도초 출신인 한화갑의 입문으로 권노갑·김옥두·한화갑, 동교동 3인방의 틀이 잡힌다. 세 사람은 술하게 명멸해간 동교동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아 가장 크게 빛을 보게 된다. 이들은 비교적 젊었고,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며, 누구보다도 끈끈한 동지애와 의리를 보여주며, 위기와 좌절 속에도 몸 사려 달아나지 않고 김대중을 지키고 보필했다. 1969년의 3선 개헌과 1970년의 야당 대통령후보 경선은 동교동을 확실한 세력으로 승격시키는 계기가 됐다. 김영삼·이철승과 후보 경쟁을 하게 된 김대중은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주류 김영삼(실제로 당권을 장악한 유진산은 김영삼을 밀었다)을 제치기 위해 이철승과 손잡고 대역전극을 시도했다.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후보 김대중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동교동 인사들의 고난

1970년대는 김대중과 동교동에게 천당과 지옥을, 희망과 절망을 교대로 안겨준 10년이였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제 1야당 대통령후보로 오른 것이, 그리고 민주공화당의 박정희와 맞서 540만표를 얻어 선전한 것이 기막힌 성취이자 천국에 다다른 기쁨이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라는 타이틀은 동교동 인재풀도 넓혀주어 경기도 양평 출신의 천명기(서울대 법대 졸업, 8·9·10대 의원을 지내고 5공 때 보건사회부장관 역임), 안병규(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부산일보 기자를 거쳐 11·12·13대 의원)도 한 때 식구가 됐다.

1972년 ‘10월 유신’은 동교동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유신 쿠데타 10일 전 김대중은 고관절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나가고 없었다. 국회해산 비상계엄 헌법정

지 대학휴교 언론검열 발표와 함께 동교동 비서 김옥두·조길환 등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 취조를 당해야 했다. 권노갑·한화갑도 예외가 아니었다. 모진 매질과 함께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때 자금지원을 한 기업인 이름을 대라는 것, 김대중이 용공분자임을 고백하라는 것 등이었다. 김대중을 지지했던 언론인·경제인·정치인들도 중앙정보부와 군부대에서 혹독한 고문을 견뎌야 했다.

김대중은 해외에서 망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국내(동교동)에서는 김대중과 교신이 불가능해 해외 상황을 알 길이 없었다. 한화갑이 당시 합동통신사에 있던 외신기자클럽에 가서 DJ 관련 기사를 비밀리에 복사해 와 동교동에서 전략을 숙의하곤 했다. 그러다 중앙정보부에 발각돼 불온문서를 본다는 이유로 끌려가 두들겨 맞는다.

1973년 8월 8일 김대중이 도쿄에서 중앙정보부에 납치된다. 배에 실려가다 수장될 뻔한 김대중은 닷새 뒤 구사일생으로 동교동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이 납치 음모와 실행에는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정점으로 중정 요원 9개조 46명이 동원됐다. 중앙정보부 공작선이 동원되고 도쿄 부산 서울로 이어지는 중정 조직이 풀 가동됐다. 일본은 주권침해라고 들고 일어나고, 한·일간 외교 분규로 번진다. 국무총리 김종필이 사죄 사절로 일본에 가고,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은 경질된다.

그러나 김대중은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다. 박 정권은 김대중에 대한 일본의 원상회복(납치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보내라는) 주장을 차단하고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대중에게 수년 전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걸어 법원 출석 요구서를 보낸다.

● 전남도당 4월 재정운영 보고

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 12억3천928만524원

지출, 조직활동비 4천711만3270원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의 4월 수입은 이월금 12억3천928만524원과 당비 1천666만6천원, 중앙당 지원금(보조금 외)을 포함해 총 12억9천189만935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 지출 항목으로는 인건비 2천422만930원, 사무소 설치운영비 929만2371원과 조직

활동비 4천711만3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정책개발비 490만원과 하급당부 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말 현재 잔액은 12억485만8465원임을 보고드립니다.

4월 재정 운영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또는 의견이 있으신 당원들께서는 도당 사무처 장미랑 총무간사(T.061-287-12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투명하고 알찬 도당 재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입·지출 총괄표

(수입·지출기간 : 2015.04.01 ~ 04.31)

구분	과목	계	보조금외	
수입	전 년 도 이 월	1,239,280,524	1,239,280,524	
	당 비	16,666,000	16,666,000	
	기탁금(중앙당예한함)	0	0	
	후 원 회 기 부 금	0	0	
	보조금(중앙당예한함)	0	0	
	차 입 금	0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0	0	
	지 원 금	보조금	상급당부	0
			하급당부	0
		보조금외	상급당부	34,498,582
			하급당부	0
소 계	34,498,582	34,498,582		
그 밖 의 수 입	1,454,430	1,454,430		
합 계	1,291,899,536	1,291,899,536		
지출	선거비용	0	0	
	기본경비	인건비	사무소 설치 운영비	9,292,371
			정 책 개 발 비	4,900,000
		정 치 활 동 비	조 직 활 동 비	47,113,270
			여 성 정 치 발 전 비	0
			그 밖 의 경 비	14,500
	지 원 금	보조금	상급당부	0
			하급당부	0
			계	0
		보조금외	상급당부	0
			하급당부	1,500,000
			계	1,500,000
	소 계	1,500,000	1,500,000	
	합 계	87,041,071	87,041,071	
	잔액	1,204,858,465	1,204,858,465	

● 당비 지출내역

과 목	연월일	내역	성 명	직 업	금 액
그 밖의 경비	15.4.10	농협 UMS 수수료	농협 UMS요금	금융	13,500
그 밖의 경비	15.4.10	농협 UMS 수수료	농협 UMS요금	금융	1,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1	임명정(케이스,속지)200부씩 지역위 발송 택배비 및 박스구입비	한진택배	택배	7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2	사무처 다과 구입비	와이마트남약	도매	7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2	임명정(케이스,속지)100부 보성지역 발송 택배비	한진택배	택배	6,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2	사무실 물품구입비(당보발송 주소용 라벨지)	오피스디포	문구	55,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7	도장제작비용(사무실 서류접수관련)	진금사	도장	2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8	등기발송비	남약우체국	우편	3,16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14	홈페이지 서버호스팅 및 유지계약 (기간:15.04.15~16.04.14)	아이디엔트	홈페이지	1,98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14	사무실 임대료(4월분)	주)현주건설	건설	2,75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14	복사기,프린터 임대비(A4비용포함)	제이앤씨정보통신 (복사기)	임대	596,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15	업무수행유류비 (민원국장 민원국장 이용득 최고위원 팽목항 방문관련)	공행LPG충전	유류	20,626
사무소설치·운영비	15.4.15	당보추가발송 관련 택배비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나주시청 홍보팀장)	한진택배	택배	1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17	사무처 다과 및 물품 구입비	와이마트남약	도매	92,1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20	전남도당 당직자 명함제작 비용	디자인여백	제조	33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20	당보 택배발송 택배비	한진택배	택배	5,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20	정수기 렌탈비용(자동이체)	웅진코웨이	대여	47,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27	사무실 CCTV 이용료	씨피에스	서비스	49,5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27	3월 전화요금 자동이체(문자요금포함)	(주)한국케이티	전화국	2,080,56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27	3월 전화요금 자동이체	(주)한국케이티	전화국	5,66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27	3월 전화요금 자동이체	(주)한국케이티	전화국	8,050
사무소설치·운영비	15.4.30	사무처 다과 및 물품 구입비	와이마트남약	도매	90,350
인건비	15.4.1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사무처장,대변인,민원국장,기획국장,총무간사)	묵은지명가	음식	61,000
인건비	15.4.2	사무처 당직자 식대(조직국장,전략국장,민원국장,여성국장,기획국장,총무간사)	콩주발 전주콩나물국밥	음식	42,000
인건비	15.4.3	사무처 당직자 점심식대 및 식대미수금 +3/30점심(수석사무처장,총무간사)(₩13,000) +3/31점심(기획국장,총무간사)(₩16,000) +3/31저녁(수석사무처장,대변인,조직국장,전략국장,민원국장,기획국장,총무간사)(₩60,000) +4/1점심(대변인,조직국장,전략국장,기획국장,총무간사)(₩24,000) +4/3점심(수석사무처장,대변인,전략국장,기획국장,총무간사)(₩51,000)	쌍구분식	음식	164,000
인건비	15.4.5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사무처장,대변인,총무간사)	묵은지명가	음식	35,000
인건비	15.4.7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사무처장,기획국장)	금탑소머리국밥	음식	16,000
인건비	15.4.8	당직자 점심 식대 및 식대미수금 +4월6일 점심(전략국장,총무간사,일시사역)(₩22,000) +4월7일 저녁(대변인,총무간사)(₩16,000) +4월8일 점심(수석사무처장,총무간사)(₩10,000)	쌍구분식	음식	48,000
인건비	15.4.8	사무처 당직자 저녁 식대(대변인,전략국장,총무간사)	한사랑한우명가	음식	23,000
인건비	15.4.8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사무처장,대변인,민원국장,편집위원,총무간사)	하이파이브	음식	59,900
인건비	15.4.10	유급사무당직자 4대보험료 3월분(전당직자 퇴직정산보험료₩1,666,840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4,920,660
인건비	15.4.12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사무처장,민원국장,기획국장)	우리회관	음식	24,000
인건비	15.4.12	당직자 연말정산 및 퇴직금 정산금	000	전)총무국장	79,860
인건비	15.4.12	당직자 연말정산 및 퇴직금 정산금	000	전)공보국장	440,590
인건비	15.4.13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사무처장,민원국장,기획국장)	양지한우마을	음식	21,000
인건비	15.4.17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사무처장,민원국장,기획국장)	진향전통종화요리	음식	30,000
인건비	15.4.19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사무처장,대변인,전략국장,민원국장,기획국장,총무간사)	전통순대국밥	음식	51,000
인건비	15.4.20	상근당직자 4월분 급여	000	수석사무처장	2,609,980
인건비	15.4.20	상근당직자 4월분 급여	000	대변인	2,644,410
인건비	15.4.20	상근당직자 4월분 급여	000	조직국장	2,639,980
인건비	15.4.20	상근당직자 4월분 급여	000	전략국장	2,654,410
인건비	15.4.20	상근당직자 4월분 급여	000	민원국장	2,639,980
인건비	15.4.20	상근당직자 4월분 급여	000	기획국장	2,639,980
인건비	15.4.20	상근당직자 4월분 급여	000	간사	1,908,220
인건비	15.4.22	사무실 관리비,전기료(3월분)	남약도청프라자	부동산	1,003,365
인건비	15.4.26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사무처장,홍보위원장,민원국장,기획국장)	참이맛빠다귀	음식	33,000
인건비	15.4.29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사무처장,대변인,전략국장,민원국장,총무간사)	동부실내포장	음식	49,000
인건비	15.4.30	사무처 당직자 식대 미수금 +4.07 점심 대변인,전략국장,총무간사(₩25,000) +4.23 점심 대변인,전략국장,총무간사(₩22,000)	홍빠오	음식	47,000
인건비	15.4.30	사무처 당직자 식대 미수금 +4.10 점심 대변인,전략국장,민원국장,총무간사(₩33,000) +4.14 점심 전략국장,민원국장,총무간사(₩25,000) +4.20 저녁 대변인,총무간사(₩14,000) +4.24 점심 총무간사(₩3,000) +4.29 점심 전략국장,총무간사(₩14,000)	쌍구분식	음식	89,000

인건비	15.4.30	사무처 당직자 식대 미수금 +4.09 점심 대변인.전략국장.총무간사 (₩32,000) +4.13 점심 전략국장.총무간사 (₩16,000) +4.20 점심 대변인.총무간사 (₩16,000) +4.21 점심 대변인.총무간사 (₩16,000) +4.22 점심 대변인.전략국장.총무간사 (₩34,000) +4.28 점심 전략국장.총무간사 (₩18,000)	한사랑한우명가	음식	132,000
인건비	15.4.30	유급사무당직자 연말정산 및 정산금	000	간사	117,960
정책개발비	15.4.17	사무국장.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이00 외 25명)			4,900,000
조직활동비	15.4.8	제1차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심사비(허00 외 6명)		윤리심판원	700,000
조직활동비	15.4.11	사무국장.연락소장 및 당직자 정책간담회다과비	드롭탑	음식	65,200
조직활동비	15.4.11	사무국장.연락소장 및 당직자 정책간담회다과비	드롭탑	음식	92,800
조직활동비	15.4.14	가거도 추락사고 합동분향식 화환 구입비	탕진화원	꽃	100,000
조직활동비	15.4.14	4.29 재보궐선거 곡성 (가)선거구 후보자 경선(ARS)여론조사 비용	닐슨컴퍼니	서비스	6,010,000
조직활동비	15.4.14	4.29 재보궐선거 곡성 (가)선거구 후보자 경선(ARS)여론조사 비용	포커스컴퍼니	서비스	6,892,000

조직활동비	15.4.17	당보 추가발송 비용(전직국회의원.전직지방의원.주소유류자포함)	남악우체국	우편	117,300
조직활동비	15.4.17	전남도당 권리당원 정비사업 운영비(04.03-04.15)(9일간)	000	일시사역	450,000
조직활동비	15.4.17	제3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식대	사랑채한정식	음식	80,000
조직활동비	15.4.20	제3차 전남도당 당원자격심사비(허00 외 4명)		도당 당원자격 심사위원	500,000
조직활동비	15.4.21	전남도당 당보제작비용(20,000부)	심미안기획	제작	8,900,000
조직활동비	15.4.22	당보 추가발송비용(37통)	남악우체국	우편	23,970
조직활동비	15.4.22	세월호 추모 거리현수막 제작비용(목포 외 20개지역)		제조	2,712,000
조직활동비	15.4.27	당보제작 원고료 (남악시론(3월:10매),(4월:10매)전남의야당사(4월:18매))	000	도당편집위원	570,000
조직활동비	15.4.28	국회의원 지역활동 지원금(박지원 외 9명)		국회의원	19,900,000
하급당부보조금외	15.4.13	곡성정당당선사무소 지원금	000	정당선거 사무소회계 책임자	1,500,000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별정 우체국

고객의 따뜻한 마음! 행복한 마음!
별정우체국중앙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별정우체국중앙회 회장 윤민수 부회장 정동호 부회장 최장옥
 이사 이승우 이사 박영철 이사 윤정일 이사 이용승 이사 정진성 이사 서경수 이사 박영철 이사 최욱성 이사 김승룡 이사 한동수
 감사 홍봉언 감사 배일진 감사 정정의
 경기도회장 허광행 강원도회장 신승창 충북도회장 김찬범 충남도회장 김영진 전북도회장 홍수정 전남도회장 윤철성 경북도회장 정병운 경기도회장 전태완

KGU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대학원

한국의 셉록홈즈 프로파일러를 찾습니다!

국내 최초 민간조사전문가(사립탐정) 최고위과정 제1기 모집



모집안내

- ◇ 응시 자격 : 민간조사원(사립탐정)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남·여 대학(원)생 및 민간조사원 국가자격시험 준비생, 군·경찰·정보기관·공직·언론사·금융기관 퇴직자, 민간조사 창업희망자, 공공기관 및 기업체 감사·보안·경비·경호·생활안전 담당자
- ◇ 모집 인원 : 50명 (선착순 접수)
- ◇ 개강 일 : 2015년 4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 7월 25일
- ◇ 교육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7시 (총 15주 과정)
- ◇ 등록금 : 220만원
- ◇ 교육 장소 : 경기대학교 서대문 캠퍼스 종합 세미나실

교수진

- 송하성 주임교수(경기대학교 교수·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관리관)
- 손상철 책임교수(국민대학교 교수·대한민간조사협회 수석부회장)
- 노인수 변호사(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김경진 변호사(전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범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 윤광재 교수(심미안기획 대표·수도군단 특공연대 본부중대장)
- 송승환 교수(전 파이낸셜뉴스 기자·국가기록원 기록조사위원)
- 강경량 교수(경찰공제의 이사장·전 경기지방경찰청장)
- 이갑진 교수(전 국군기무사령부 중앙보안감사단장·예비역 대령)
- 정중원 교수(고려대학교 초빙교수·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 김진희 교수(경기대학교 교수·전 미래에셋증권 상무)

특 전

경기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민간조사전문가 인증패 수여,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진학시 가산점 부여

문의 : (02)363-5504 / www.kgupi.kr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 기념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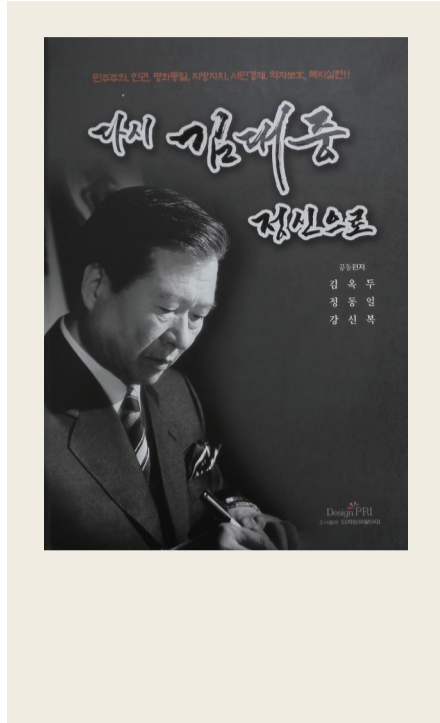
김옥두 전 사무총장 '다시 김대중 정신으로' 발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역정과 삶은 다른 각종 언론 보도기사와 문집, 당보 및 사진자료 등을 집대성한 '다시 김대중 정신으로' 책자가 발간됐다.

김옥두 전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김대중 평화센터 이사, 14·15·16대 국회의원)이 정동일 전 민주평통자문위원, 강신복 민주신문 편집위원과 함께 공동편저로 발간은 이 책자는 1248쪽 분량의 비매품이다. 도서출판 디자인 PR에 의해 발간됐다.

이 책자에는 지난 27년간 DJ에 관련된 신문기사, DJ 관련 서적 112권에 대한 분석과 논평, 추모 에세이와 시 등을 한 데 모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발간사에서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 때 생각나는 분이 김 전 대통령이다. 이 책을 통해 김대중 정신의 요체인 '서민, 약자보호, 경천애인'을 되새겨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통일시대를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시지기 봉사단' 발대식, 지난달 26일 나주 수변공원

나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지난달 26일 나주시 대호동 수변공원에서 '천년의 역사를 지키는 나주시지기 봉사단'(단장 편남균)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신정훈 의원, 홍철식 나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당직자,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원들은 발대식을 마치고 수변공원 주변에서 쓰레기 줍기와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나주시지기 봉사단은 천년을 이어온 나주의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 매월 환경보호 및 문화재 보호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장흥지역위 여성위원회, '어르신 공경의 날' 행사

장흥지역위원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6일 오전 부산면 용반마을 효자마을에서 '어르신 공경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채은아 여성위원장과 읍면협의회장 등 지역위 당직자들은 이날 부산면 어르신 100여명을 초청해 식사, 염색, 목욕까지 윈스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카네이션을 가슴에 꽂아드리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남도의회 '어린이 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

전남도의회(의장 명현관)는 지난 1일 목포 서해초등학교 100명이 참가하는 '어린이 의회 체험 교실'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의회 체험교실은 서해초등학교가 현장 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요청해 이뤄졌다. 어린이들은 이날 '등교 후 불량식품을 먹는 것에 관한 조례안'과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찬반 토론, 표결 등의 모의 의회교실을 체험했다.

곽윤섭 사진기자 초청 포토클리닉 개최... 28일 나주

전남도당은 지난달 28일 나주시 중앙로 일성빌딩에서 '한겨레21 곽윤섭 사진기자 초청 포토클리닉'을 개최했다.

오는 6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6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사진 강좌는 이론 교육 5회, 실기교육 1회로 나눠 실시되며 일반 당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수강료는 3만원이며, 당원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인물과 보도사진 촬영기법에 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매출 100억 달성의 해!
우리는 가족이다!
좋은사원! 좋은제품! 좋은회사!

고객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맛있고 정갈한 반찬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더원푸드 임직원 일동 -

- 단체급식 위탁운영
- 반찬제조 식재료유통
- 출장뷔페 도시락 야외행사
- 반찬쇼핑몰 '경개닷컴' 구축 중

(주)대창식품·더원푸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785-1 B1 대표 이남규
TEL : (062)943-9423~4, 971-8781 / 010-3817-3553

